

## 공개된 정보

2018년 4월 17일 저녁 7시경, 내과 전문의 이찬호가 진 병원의 신관 1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찬호는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스타 의사로 떠오르던 중이었고 원장의 막내딸인 김가원과과의 정혼으로 차기 원장 내정 소문까지 있었다. 신관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건물이었고, 당일에는 개인 짐 정리와 병실 내부 및 기기 점검을 위해 병원 관계자 몇 명만 들어가 있었다. 이찬호가 숨진 장소는 신관 13층의 격리병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 입가에는 타액이 남아있고 옷매무새는 상당히 흐트러져 있었지만, 격투의 흔적은 없다. CCTV는 마침 6시부터 7시까지 점검을 위해 꺼져 있었기에 그사이에 누가 격리병실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장에 있던 인원 중 알리바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총 4명. 당신은 용의자 중 한 명이 되어 당신의 무죄를 밝히고 범인을 찾거나, 혹은 당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다른 이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야 한다.

##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6시	담당 구역 점검 시작. CCTV 꺼짐
	최혜민, 13층 간호사실 점검
	김가원, 14층 마취과 점검
	김득진, 14층 원장실 점검
오후 6시 30분	최혜민, 13층 휴게실 잠깐 들름
오후 6시 55분	최민성, 병원 도착
오후 7시	최혜민, 13층 격리병실에서 최초로 시체 발견
오후 7시 1분	최민성, 비명 소리 듣고 격리병실 도착
오후 7시 4분	김득진, 최혜민으로부터 전화 받고 격리병실 도착
오후 7시 6분	김가원, 응성거리는 소리 듣고 격리병실 도착



최혜민(28)



## 최혜민(28) 여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이찬호를 펜타닐에 중독시켜 이용하려 했다.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이지 않는다.

### 당신의 행적

당신은 산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UH그룹 회장의 딸이다. 회장의 딸이라 해도 상속권이나 후계자 지위에 서는 한참 떨어져 있다. 6남매 중 막내인 데다가 회장의 친혈육도 아니고 후처가 데려온 자식. 사실상 후계 다툼에서 논의의 인물이고, 4년 전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는 더욱 멀어졌다. 젊은 가슴에는 사그라들지 않는 야심이 있었지만, 야심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분수에 맞지 않는 발톱을 들켰다간 발목까지 잘려 나갈 테니까. 간호대학 졸업 후 진 병원에 지원한 것에 대단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UH그룹의 그림자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필요했을 뿐이다.

진 병원은 이상할 정도로 UH그룹의 권위에 있었다. UH그룹의 의료 관련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체는 의료 잡지 위클리메디컬과, 제약 회사인 UH제약. 특히 UH제약은 국내 대형병원 대부분에서 높은 납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진 병원만은 UH제약과 이렇다 할 관계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진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은,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UH그룹에서의 입지에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주었다.

뱃속의 칼을 꺼내기 시작한 것은 이찬호를 만나면서였다. 그 경박한 남자는 병원장의 딸과 이미 정혼한 사이면서도 당신에게 남몰래 추파를 던지고는 했다. 당신은 그의 추파를 피하지 않았다. 특별히 그를 매력적으로 느껴서는 아니다. UH그룹의 힘이 유독 미치지 않는 이곳, 진 병원의 차기 원장이기 때문이었다. 진 병원을 움직이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다른 형제들에게 맞설 무기가 생긴다. 당신은 이찬호를 당신의 포로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사랑의 포로 같은 어리숙한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포로로. 당신은 이찬호를 적극적으로 유혹했고 이찬호는 금세 당신에게 빠져버렸다.

당신은 이찬호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를 점차 마약류의 세계로 끌어들었다. 얼마 안 가 이찬호는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붙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 그는 펜타닐을 빼돌리기 위해 무리한 처방전을 남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찬호는 당신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말았지만, 이미 그는 당신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불온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비밀'이라는 당신의 믿음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찬호의 경솔함이었다.

오늘 아침, 이찬호는 원장의 중요한 비밀을 알아냈으며, 입에 공을 물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김진진 원장이 이찬호처럼 쉽게 무릎 꿇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특별한 비밀이 있다면 알아줘서 나쁠 것이 없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30분, 휴게실에서 그 비밀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당신은 정확히 6시 30분에 휴게실에 도착했지만, 이찬호는 없었다. 언제나 당신과의 약속에는 먼저 와서 기다리던 그였다.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 중이다. 메신저로 위치를 물어도 답이 없다. 6시 34분, 당신은 휴게실을 벗어나 직접 그를 찾아보기로 했다. 이찬호가 김가원에게 붙잡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당신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의 마취과에 찾아가다. 마취과 안에도 들어가 보았지만 이찬호는 커녕 김가원도 없었다. 약품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때는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3층에 내려온 당신은, 김가원이 오늘 격리병실을 점검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격리병실은 문이 열려 있었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간 당신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있었다. 시체가.

당신은 이찬호의 시체를 본 순간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혹시라도 탄성이나 비명이 새어 나올까 봐. 분명히 타살이다. 그것도 이찬호가 말한 '원장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 안타깝거나 슬프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살인사건과 엮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당신은 혹시 이찬호의 시체에 당신과 관련된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일을 위해 시체를 뒤적거리던 당신은, 그의 몸에 붙어있는 펜타닐 패치를 발견했다. 곤란하다. 당신은 패치를 떼어내 보려 했지만, 떼어도 자국이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했다. 이찬호의 몸을 살살이 뒤져 확인한 당신은,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에 숨을 크게 들이켰다. 멋진 비명을 지르기 위해서.

- \* 팁: 펜타닐은 사용 방법에 따라 질식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추가 정보: 당신의 어머니 이름은 '양주희'이고, 어머니가 재혼 하기 전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양혜민'이라는 이름을 썼다.

### 당신의 시간대별 실제 움직임

오후 6시 30분	휴게실 입장
오후 6시 34분	휴게실 퇴장
오후 6시 37분	엘리베이터를 통해 14층 도착
오후 6시 38분	마취과 입장. 약품함 문이 열려 있음
오후 6시 38분	마취과 퇴장
오후 6시 40분	엘리베이터를 통해 13층 도착
오후 6시 40분	격리병실 입장. 시체 발견
오후 6시 42분	시체 조사
오후 6시 53분	펜타닐 패치 발견. 떼어내려 했지만 자국이 남아 포기
오후 7시	비명을 질러 사건 알림